

한복기능경기대회의 과제에 관한 연구

– 출제 경향과 제작 기법을 중심으로 –

구미란

경남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task of the Korean traditional skills competitions
– focused on the trends of the examination and manufacturing techniques –

Mi-Ran Koo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Industry, Kyungnam University

(2017. 9. 8 접수; 2017. 11. 14 수정; 2018. 2. 22 채택)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the assignments for the Hanbok skill contests between 1998 and 2017 so that the Korean hanbok can be properly passed down. this study proposes a variety of useful values for the Hanbok culture industry by providing basic data on various Hanbok making techniques to the Hanbok artisa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39 assignments for the Hanbok skill contest are as follows. Firstly, The 20 assignments presented in the Local Skills Competitions consisted of 13 tasks (65%) in formal wear and 7 tasks (35%) in casual wear. Formal wear is mainly comprised of men's and children's wear (85.7%). There are Pungcha Baji, Sagusam, Kkachhi Durumagi, Jeonbok & Bokgeon, Durumagi, and others on the formal wear of men's/children's wear. In casual wear, 66.7% of women's wear such as scarves, skirts, jeogori, Hwejang Jeogori & chima were on the list of assignments. Secondly, All of the 19 assignments presented in the National Skills Competitions were in adult suits. Thirteen tasks (68.4%) were in formal wear and 6 tasks (31.6%) were in casual wear. Nine out of the 13 formal wear tasks (69.2%) were men's clothes. In 6 assignments of the casual wear, men's and women's clothes were presented three times each. Formal wear that had many assignments was the men's Chulik, which was presented three times in 2006, 2008 and 2016. Thirdly, Eighteen (90%) of the 20 assignments presented at the Local Skills Competitions were for lined clothes, and the remaining 2 (10%) were for unlined clothes. Eleven tasks (57.9%) out of the 19 assignments presented in the National Skills Competitions were for lined clothes, and 8 tasks (42.1%) were for unlined clothes.

Key Words: Hanbok skills competition(한복기능경기대회), normal wear(평상복), formal wear(의례복), lined clothes(겹옷), unlined clothes(홀옷)

[†]Corresponding author ; Mi-Ran Koo
E-mail : miho749@kyungnam.ac.kr

I. 서론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의 사기양양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심신의 건전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이 있다. 한복부문의 경우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로 나뉘며, 한국전통복식인 한복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참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복분야의 기능경기대회는 1년에 2번 진행되며, 예선대회 격인 지방기능경기대회와 본선대회 격인 전국기능경기대회로 나눌 수 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사회의 숙련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우수숙련기술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기능인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숙련기술 우대풍토를 조성하고 저변 확산을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한복분야의 지방기능경기대회는 매년 4월경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같은 해 9월경에 개최된다. 과제제작 시간은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약 16시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약 19시간이 주어지며 제도, 마름질 및 한복제작을 위해 약 3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과제의 공개여부는 경기시작 2주 전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 과제 주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7년 전국대회부터 한복부문의 직종설명에서 '전통'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 한국전통의상의 답습이 아닌 평가를 위해 제작된 과제 수행이므로 과제의 요구사항에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복은 민족문화와 전통적인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떠올리는 생활문화의 일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과거의 민족문화유산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 할 수 있다(박은주, 2013).

한복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복식의 형태에 관한 연구들로는 장옷에 관한 연구(류보영, 임상임, 1999), 조선시대 철릭과 남자 포류와의 상호관계(정혜경, 2000), 조선 후기 궁중 어린

이 복식에 관한 연구 및 재현을 한 연구(곽경희, 2012) 등이 있다. 또 바느질 기법에 관한 연구로는 조선시대복식의 바느질 기법에 관한 연구(구남옥, 2008)와 조선시대 철릭의 형태 및 바느질법에 관해 연구(김중숙, 2003)가 있으며, 출토복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장인우(1996)와 안명숙(2011)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선행 연구들은 주로 복식의 형태나 출토복식의 재현과 관련된 주제나 복식에 나타난 바느질 기법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조선시대 복식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복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시대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들은 많으나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응용되어 제작되거나 착용될 수 있는 한복 제작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복기능인들에게 우리의 한복이 올바르게 계승되고 실용화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의 출제문제들을 유형화하고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복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한복기능인들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복의 종류와 역사적 의미와 특성을 고찰하여 한복문화산업에 다양한 활용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복의 종류

한복은 평상복과 의례복으로 나눌 수 있다(이주원, 1992). 본 연구에서는 평상복의 경우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배자로 분류하였고, 의례복의 경우 두루마기나 철릭 등의 포에 해당하는 형태로 분류하였다. 한복기능경기대회의 출제 작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다음과 같다.

1) 아동한복

아동복은 풍차바지, 오방장두루마기, 전복과 복건, 색동저고리, 사규삼 등이 출제되었다. 풍차바지는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부터 4~5세까지의 어린이에게 입히는 어린이용 바지로서 일명 풍세바지라고도 한다. 앞은 어른 바지와 같이 큰 사폭과

작은 사복을 달아 딱히게 만들고 뒤는 밑을 트고 뒤로 여미게 되어 있으므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편리한 바지이다.

사규삼은 조선시대 남자아이가 관례(冠禮)전에 입던 겉옷이다. 사규삼이란 옷자락이 네 폭으로 갈라져 있는 데서 나온 명칭이다. 형태는 합입으로 깃이 곧으며 뒷 중앙과 양옆의 겨드랑이를 튼 포로 양옆 튼 곳과 깃, 도련, 소매끝 둘레에 검은 선을 두르고 그 위에 길상어문(吉祥語紋), 편복문(박쥐문양), 수자문(壽字紋) 등을 금박했다. 사규삼에는 세조대(細條帶)를 띠고 복건을 쓴다(e-뮤지엄, 사규삼).

전복은 갑오경장 이전에 문무관들이 입던 평상시의 옷옷으로 소매가 없고 앞뒤와 양옆을 터서 활동에 편리하도록 된 옷이다. 요즘은 남아의 돌정장으로 착용하고 기타 명절이나 호사용으로 입는 풍습은 조선조 말에 초립동들이 두루마기 위에 입었던 것이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복은 대개 복건과 같이 입는데 복건은 주로 갑사를 사용하고 색은 주로 남색을 사용하며, 술띠를 늘리고 주머니를 만들어 달아 주기도 한다.

오방장두루마기는 까치두루마기라고도 하며 썩이나 길과 무는 같거나 다른 색으로, 특히 소매에는 여러 가지 색을 이어 만든, 아이들 입성거리 중에서 가장 치레한 옷이다. 흰 동정을 달며 길고 름은 허리를 한 바퀴 돌려 맬 수 있도록 길게 하였는데 이를 '돌띠'라고 한다. 주로 여유 있는 집 아이들(특히 남아)이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수한 날에 입었다.

아동 색동저고리는 돌이나 명절에 어린 아이에게 입히는 저고리로 까치저고리라고도 한다. 색동저고리는 음양오행설에 따라 액 뱀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 오방색을 이어 붙여 입혔던 것으로 남아의 돌에는 색동저고리 위에 남색 돌띠를 두르고 여아에게는 자주색 돌띠를 돌려 주는 풍습도 있다(이주원, 1992).

2) 성인한복

남성의 의례복으로는 두루마기, 철릭, 도포, 학창의 등 많은 종류가 출제되었으며, 두루마기는 갑오경장 이후 남자들이 도포 대신에 겉옷으로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남자 한복의 겉옷

이자 4계절에 착용되는 예복으로 유일한 옷이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고 실내에서도 제례를 행하거나 세배를 할 때에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갖추어 입어야 한다. 도포는 조선시대에 남자들의 통상 예복으로 입던 겉옷으로 원래는 사대부와 유생들이 입는 특권적인 옷이었다. 형태는 두루마기와 같으나 소매통이 넓고 등술기가 진동선에서부터 트여 있으며 뒷길에 한쪽의 전삼을 덧붙여 등술기의 트임을 기리도록 되어 있다(이주원, 1992).

철릭은 왕이 입는 것을 천익(天益), 왕세자가 입는 것을 천익(天翼), 신하들이 입는 것을 첩리(帖裏)라고 표기하였으나 모두 철릭이라 발음하였다. 저고리와 치마가 붙은 상의하상 연의로 직령우임식의 포이며, 허리에서 주름을 잡아 위, 아래가 연결된 독특한 형태이다. 저고리와 치마를 연결한 시접선의 상하비율은 시대에 따라 달랐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치마의 비율이 더욱 커지고 주름도 풍성하게 변해가는 양상을 보인다. 철릭은 유사시 용복으로도 불편함이 없도록 소매 한쪽에는 단추를 달아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 기능성도 갖춘 포제이다(유송옥 외, 1997).

학창의는 예로부터 신선이 입는 옷이라고 하여 덕망 높은 학자가 연거복(燕居服)으로 입었던 것으로, 소매가 넓고 뒷술기가 갈라진 옷옷이다. 창의를 조선시대 남자들이 입었던 곧은 깃[直領]으로 된 포(袍)이다. 창의는 옷의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이 터져 있는 옷을 의미한다. 도포와 두루마기의 중간 형태로 조선중기부터 개화기까지 착용되었다. 학창의는 목둘레에서부터 앞단·도련·소매 끝에 5~6cm 정도의 검정색 선을 둘렀다. 뒷고대 20cm 아래에서부터 등술기를 트고 양옆도 20cm 정도 텃다. 넓은 소매에 무가 있고 옆선과 뒷술기가 트인 점은 대창의와 같으나, 색깔이 흰색이고 옷깃·수구·옷단 등 트인 부분에 검은 선을 두른 점이 다르다. 또한 심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체도에 차이가 있다. 심의는 의(衣)와 상(裳)이 연결되어 있는 상하연속의(上下連續衣)이다. 반면, 학창의는 흰색 창의에 가장자리를 검은 형겘으로 넓게 선을 두른 것으로서 세조대나 광대(廣帶)로 묶어 여몐다(e-뮤지엄, 학창의).

여성의 의례복으로는 원삼, 당의, 장옷, 반비, 배자 등이 출제되었다. 원삼은 조선시대에 상류

<표 1> 한복기능경기대회 출제 작품

풍차바지	사규삼	오방장두루마기	원삼	당의
				
온양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덕은공주 원삼/석주선기념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장옷	도포	철릭	요선철릭	학창의
				
덕은공주의 장옷/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김덕령장군의 백저철릭/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유물	국립민속박물관

계급에서 여자들이 입던 대례복으로서 신분에 따라 색과 문양을 달리 하였다. 특히 공주나 옹주가 입던 화문을 금박한 초록원삼은 일반화하여 서민층의 신부 혼례복으로 착용이 허용되었으며 요즘에도 전통혼례 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뒷자락이 앞자락보다 길어서 땅에 끌릴 정도이며 깃은 마주 보는 쌍깃으로 되어 있다.

당의는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여자들이 입었던 소례복으로서 저고리 위에 덧입었는데, 보통 길은 초록이나 연두색으로 하고 안은 다홍색을 넣으며 자주색 고름을 달고 소매 끝에는 끝둥과 같이 흰색 거들지를 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여기에 황후는 금실로 용을 수놓은 흉배를 가슴과 등 그리고 양 어깨에 달아 입었다. 형태는 저고리와 비슷하나 앞길과 뒷길이 저고리보다 길며 도련은 둥글고 옆이 트여 있어서 앞뒷길이 모두 세 자락으로 된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옷이라 하겠다. 계절에 따라 겹당의와 홑당의가 있는데 겹당의는 당저고리, 홑당의는 당적삼 또는 당한삼이라고도 부른다.

장옷은 궁중이나 양반층에서 사용하던 ‘너울(羅兀)’ 대신 간편하게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양반층에서는 쓰개치마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조선 말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장옷과 혼용되기도 하

였다. 장옷은 두루마기와 비슷한 형태로 걸감은 초록색, 안감은 자주색을 사용하였다. 길에는 쌍설과 무가 있고 소매부리에는 흰색 거들지를 달았다. 옷깃과 옷고름은 자주색이고 깃에는 동정을 달았으며 이중 고름을 달았다. 옷감은 명주·삼팔·속고사·모시·항라·경광주 등 계절에 따라 달리 사용하였다. 착용하는 방법은 머리에 쓰고 얼굴만 드러내도록 하고, 앞은 마주 여머지도록 맺은 단추를 달았으며 속에서 이중 고름을 잡아서 여민다. 일을 할 때나 또는 노인들의 경우, 접어서 머리 위에 이고 다니거나 어깨에 걸치고 다니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여성의 혼례복에 쓰거나 장례 때 수의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반비는 중국 수나라 내관들이 입던 옷으로, 처음에는 긴 소매를 줄인 것이었으나 당(唐)에 이르러 소매 길이를 더욱 짧게 하여 반비라 했다고 한다. 한국의 고유 복식에도 갓옷 등에 반비 형식의 옷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나, 기록에 처음 보인 것은 《삼국사기》에 신라 흥덕왕(興德王:재위 826~836) 9년의 복식금제(服飾禁制) 중 진골대(眞骨大)·진골녀(眞骨女)·6~5두품녀(頭品女)·4두품·4두품녀의 반비이다. 반비는 이 뒤에도 계속 착용하였을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임금과 사대부

<표 2> 지방기능경기대회 한복분야 출제 문제(1998~2017)

구분	연령	성별	과제명(년도)	바느질법
평상복 (7)	성인(6)	남(2)	겹바지&저고리(1998)	박음질, 공그르기, 끝막음처리
			저고리&사폭바지(2013)	박음질, 상침박음질
	여(4)	두루마기(1999)	박음질	
		반회장저고리&겹치마(2000)	박음질, 숨은 뜨기, 성근박음질	
		삼회장저고리&치마(2004)	박음질, 어슷시침, 속박음질	
		반회장저고리&겹치마(2009)	직각공그르기, 싹솔	
	아동(1)	여(1)	색동저고리&풀치마(2002)	박음질
의례복 (13)	성인(6)	남(1)	두루마기(2015)	통솔, 공그르기, 상침박음질, 숨뜨기
			원삼(2001)	박음질, 공그르기, 가름솔
		여(5)	당의(2010)	감침질, 박음질
			반비(2012)	박음질, 공그르기, 상침박음질
			자원삼(2014)	박음질, 상침박음질, 공그르기
			홀담호(2017)*	싸박기 박음질, 공그르기
	아동(7)	남(6)	풍차바지(2003)	박음질, 가름솔, 버튼홀스티치, 직각공그르기, 감치기
			사규삼(2005)	박음질, 직각공그르기
			까치두루마기(2006)	박음질, 공그르기
			전복&복건(2008)*	박음질, 통솔, 직각공그르기
			오방장두루마기(2011)	박음질, 감침질, 공그르기
			도포형 겹두루마기(2016)	박음질, 홉질, 감침질, 반당침
		여(1)	돌쟁이 당의&치마(2007)	박음질, 접어박기

참조: **과제명***은 홀옷을 의미함

계급의 상복(常服), 관복(官服) 받침옷으로 널리 입던 담호, 군복의 겹옷인 전복(戰服)·전포(戰袍)·쾌자 등에서 그 유제(遺制)를 볼 수가 있다 (NAVER 두산백과, 반비).

배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가 없는 조끼 모양의 옷으로 신라 시대의 배당이라는 옷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후기에 많이 입었으며 안에다 털을 대어 겉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방한용으로 입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기능경기대회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 과제에 대한 내용은 마이스터넷 (<https://meister.hrdkorea.or.kr>) 자료실에 공개된 문제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5월부터 6월까지이므로 2017년 전국대회는 개최

전이라 분석 과제에서 제외되었다. 마이스터넷에 기록되어 있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회의 지방대회 출제문제와 19회의 전국대회 출제문제인 총 39회의 문제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마이스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문제를 프린트하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은 년도의 과제는 개인소장용 자료로 대체하였다. 과제의 분류는 선행연구(김지현, 송정아, 2014)를 바탕으로 평상복과 의례복, 성인복과 아동복, 남자와 여자로 분류하였다. 평상복은 한복에서 기본이 되는 옷으로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로 정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 때 착용하거나 과거 문헌에 나오는 옷들은 모두 의례복으로 구분하였고, 복식의 특성과 과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제작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3> 전국기능경기대회 한복분야 출제 문제(1998~2016)

구분	연령	성별	과제명(년도)	바느질법
평상복 (6)	성인 (6)	남 (3)	<u>고의&적삼(1999)*</u>	3번 곱술, 눌러박기
			저고리&배자(2001)	박음질, 띠고름 끼워박기
			저고리&바지(2002)	박음질, 안감재단 라글란재단, 끼워서 재단
		여 (3)	회장저고리& <u>치마*</u> (1998)	고운 손박음질, 3땀 감침질, 1땀상침, 공그르기
			<u>적삼&7폭 깨끼곶치마(2005)*</u>	3번 곱술, 2번 곱술, 1땀 상침, 공그르기
			회장저고리&조끼허리치마(2010)	박음질, 감침질, 공그르기, 버튼홀스티치
의례복 (13)	성인 (13)	남 (9)	<u>도포(2000)*</u>	박음질, 3번 곱술
			<u>도포(2003)*</u>	박음질, 3번 곱술
			<u>철릭(2006)*</u>	직각 감침질, 공그르기, 3땀 상침질, 새발뜨기, 쌈술
			단령포(2007)	박음질, 3땀 상침, 고운 홈질
			<u>요선철릭(2008)*</u>	3번 곱술, 직각공그르기, 3땀 상침질
			<u>홀담호(2009)*</u>	박음질, 2번 눌러 박기, 통술, 싸박기, 직각공그르기, 1땀 상침, 온당침질, 홈질
			<u>학창의(2012)*</u>	통술, 싸박기, 상침박음질, 공그르기
		여 (4)	단령(2014)	공그르기, 4겹 박음질, 상침박음질, 공그르기
			<u>철릭(2016)*</u>	3번 곱술, 2번 곱술, 공그르기, 꼬집어박기, 1땀 솜뜨기
			장옷(2004)	박음질, 2땀 온당침, 상침질, 온당침
			두루마기(2011)	2번 곱술, 공그르기, 홈질상침, 상침박음질
			쌍깃두루마기(2013)	4겹 박음질, 접어박기, 상침박음질, 공그르기
			여자포(장옷)(2015)	4겹 박음질, 1땀 당침질, 세땀 상침질, 공그르기

참조: 과제명*은 홑옷을 의미함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제 과제 경향 분석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방기능경기대회 한복분야의 출제 과제는 <표 2>와 같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출제된 지방대회 20개의 과제는 의례복이 13번(65%), 평상복이 7번(35%)이 출제되었으며 의례복은 13번 중 7번(53.8%)이 아동복, 6번(46.2%)이 성인복으로 출제되었다. 평상복은 7번 중 성인복이 6번(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번(14.3%)은 아동복으로 출제되었다. 의례복 중 성인복(66.7%)은 주로 여자 의상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원삼, 당의, 반비, 답호 등이 출제되었다. 의례복 중 아동복은 주로 남아 의상

(85.7%)이 출제되고 있으며, 풍차바지, 사규삼, 까치두루마기, 전복과 복건, 두루마기 등이다. 평상복의 출제 경향은 두루마기, 치마와 저고리, (삼) 회장저고리와 치마 등 여자 의상(66.7%)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지방대회의 과제는 여자 성인의 평상복인 저고리와 치마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며, 의례복으로는 남자 아동복과 여자 성인복으로 주로 겹옷의 형태가 출제되고 있다. 홑옷은 남아의 '전복과 복건(2008)'과 여자 홀담호로 전체 20개의 과제 중 단 2번(10%)만 출제되었다.

2.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제 과제 경향 분석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국기능경기대회 한복분야의 출제 과제는 <표 3>과 같다.

19년간 전국대회에서 출제된 19개의 과제는 모두 성인복으로 출제되었으며 그 중 의례복이 13번(68.4%), 평상복이 7번(31.6%)이 출제되었다. 특히 의례복은 출제 과제 13개 중 남성복이 9번(69.2%), 여성복이 4번(30.8%) 출제되었으며, 평상복은 6번 중 남성복과 여성복이 각각 3번씩 출제되었다.

출제횟수가 많은 의례복은 주로 남성의 도포, 철릭, 단령포, 답호, 학창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철릭은 2006년, 2008(요선철릭), 2016년 3차례나 출제되고 있다. 전국대회에 출제된 과제 중 홀옷은 지방대회 2번(10%)에 비해 많은 9번(47.4%) 출제되었다. 남자 평상복으로 고의와 적삼(1999), 여자 평상복으로 적삼과 7폭 개끼겹치마(2005)가 출제되었으며, 1998년의 여자 평상복 ‘회장저고리와 치마’에서는 저고리는 겹옷으로, 치마는 홀옷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남자의례복 중 홀옷으로는 도포가 2000년과 2003년에 출제되었으며, 철릭이 2006년과 2016년, 요선철릭이 2008년에 출제되었다. 또 홀답호(2009), 학창의(2012)가 홀옷으로 출제되었다. 이처럼 전국대회의 경우 19개 과제 중 9(47.4%)개가 홀옷으로 제작되었다. 홀으로 바느질하는 옷은 과제 제작 시 단처리를 모두 손바느질로 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2011년 여자 두루마기는 사각무와 액주름 무가 달리는 디자인으로 겹옷이면서 곱술 박음질을 하도록 요구되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형태의 디자인으로 겹이면서

도 곱술로 박음질하도록 하여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로 평가받기도 한다.

3. 한복 기능경기대회의 바느질법 분석

기능경기대회에 출제된 과제들은 겹옷과 홀옷으로 구분된다. 특히 홀옷은 걸감만을 가지고 안감이 없이 제작하므로 옷의 시집에서 울이 풀리지 않도록 시집 처리되어야 하므로,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소요시간도 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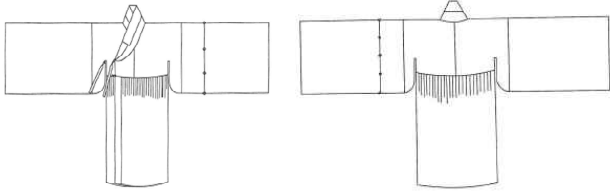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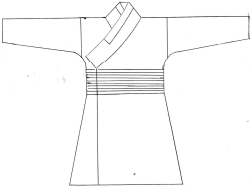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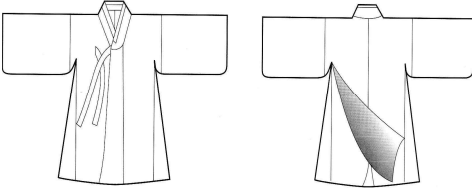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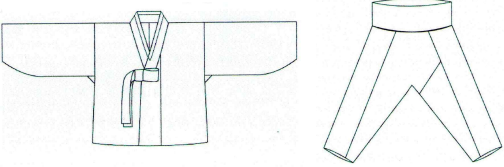

<표 4>는 홀옷으로 출제된 과제를 구분해 놓은 것으로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방대회와 전국대회 총 39과제 중 12과제가 홀옷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지방대회는 어린이 옷이나 여성 홀 답호와 같이 부피가 작거나 소매가 없는 옷이 출제되었으나 전국대회는 10과제 모두 성인복으로 남자 저고리와 바지, 혹은 여자 저고리와 치마, 도포나 철릭과 같이 부피가 크거나 제작 수량이 많아 소요시간이 긴 과제가 출제되었다. 이러한 홀옷에 사용되는 바느질법으로는 곱술, 싸박기, 통술, 싹술 등이 있다. 홀옷은 마름질한 여러 부분의 조각들을 겹옷과 다른 시집처리 방법으로 선단이나 별단을 대어 따로 붙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선단이나 별단을 붙일 때는 손바느질이 많이 사용되며 바느질 맘이 보이지 않게 부착해야 하므로 정교한 손바느질이 필요하다(김지현, 송정아, 2014).

<표 4> 홀옷으로 출제된 과제의 분류

분 류		과 제 명	
지방대회	어린이	남자	전복과 복건(2008)
	성인	여자	홀 답호(2017)
전국대회	성인	여자	회장저고리 홀치마(1998)
		남자	고의적삼(1999)
		남자	도포(2000)
		남자	도포 (2003)
		여자	적삼과 7폭 개끼겹치마 (2005)
		남자	철릭(2006)
		남자	요선철릭(2008)
		남자	홀 답호(2009)
		남자	학창의(2012)
		남자	철릭(2016)

바느질법	과제명	도식화
짜박기 바느질	학창의 (2012)	
	홀 답호 (2009)	<p>겉섷술기, 안섷술기, 소매술기, 옆무술기</p>  <p>배래, 동아래(옆선)를 제외한 모든 술기</p>
통 술 · 쌈 술	학창의 (2012)	 <p>소매배래</p>
	전복 복건 (2008)	 <p>통술: 어깨술기, 등술기, 옆술기, 무의 술기</p>
	홀 답호 (2009전국)	 <p>통술: 배래, 동아래(옆선)</p>
첼릭 (2006)	 <p>통술: 배래 쌈술: 안섷 쪽 주름 없는 부분</p>	

<표 5> 홑옷 제작을 위한 바느질법

바느질법	과제명	도식화
곱 술	철릭 (2016)	
		2번곱술: 상(치마)의 선단, 밑단, 의(저고리)의 수구단, 탈부착 소매단, 등바대 3번곱술: 등술, 겹섷술, 안섷술, 진동술, 치마술, 소매배래, 옆선
	요선철릭 (2008)	
		3번곱술: 허리시접을 제외한 모든 시접
	적삼과 7폭 개끼겹치마 (2005)	
	2번곱술: 적삼과 치마의 곡선부분, 치마폭의 안감 폭 술기, 겹감 술기가 끼워 박혀지는 술기 3번곱술: 2번 곱술 부위를 제외한 모든 술기	
	도포 (2000) (2003)	
		3번 곱술: 모든 술기
	고의 적삼 (1999)	
	3번곱술: 선이 들어가는 부분과 두꺼운 부분을 제외한 모든 술기	
짜락기 바느질	홑 답호 (2017:지방)	
		등술기, 무술기, 섷술기, 옆술기, 어깨술기

<표 5>는 홑옷제작에 사용된 바느질 기법에 의한 구분과 과제의 도식화이다. 제시된 도식화는 마이스터넷(<https://meister.hrdkorea.or.kr>)의 도식화를 인용하였다.

곱술은 주로 옷감이 얇고 투명한 박이웃이나 얇고 울이 풀리기 쉬운 옷감에 주로 사용된다. 겉과 겹이 마주한 원단에 완성선보다 조금 밖으로 나가 박음질 한 후 시접을 꺾어 가장자리 쪽으로 눌러 박음질 한 후 나머지 시접은 잘라낸다(두 번 곱술). 그리고 잘려 나간 술기 쪽으로 술기를 눌러 접어 꺾어 다린 후 다시 술기 위 가장자리를 박는데 이것이 세 번 곱술로 정식 곱술이라 한다. 홑옷으로 곱술이 사용된 과제로는 전국대회 고의와 적삼(1999), 도포(2000, 2003), 적삼과 7폭 개끼접치마(2005), 요선철릭(2008), 철릭(2016)이 있다. 고의와 적삼(1999)과 도포(2000, 2003), 요선철릭(2008)은 정식 곱술인 3번 곱술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2번 곱술과 3번 곱술을 혼용한 경우는 적삼과 7폭 개끼접치마(2005)와 철릭(2016)이다.

짜박기 박음질은 한쪽 시접이 다른 쪽 시접을 싸서 첫 박음질 선이 보이지 않게 하여 그 위에 박음질 한다. 그 후 시접선을 꺾어서 다리고 정리하여 겉에서 보면 박음선이 0.1cm정도 감춰지는 것이 특징이다. 홑옷으로 짜박기 박음질이 사용된 과제는 홑 답호(2009)의 배래와 동아래(옆선)을 제외한 모든 술기에 짜박기 박음질을 사용하였다. 또 학창의(2012)의 겹섧술기, 안섧술기, 소매술기, 옆무술기와 홑 답호(2017)의 등술기, 무술기, 섧술기, 옆술기, 어깨술기가 짜박기 박음질로 홑옷으로 제작되었다.

홑옷으로 제작하는 과제의 경우 통술과 씬술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통술이 사용된 과제는 2008년 지방대회의 '전복과 복건'에서 전복의 어깨술기, 등술기, 옆술기, 무의 술기와 철릭(2006)과 홑 답호(2009)의 배래와 옆선(동아래), 학창의(2012)의 소매배래이다. 또 2006년 출제된 철릭의 경우는 배래는 통술, 안섧은 씬술을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하였다.

한복기능경기대회에 출제된 과제 제작에 가장 많이 쓰인 손바느질로는 공그르기를 들 수 있다. 공그르기는 치마단을 하거나 끈을 접을 때 바늘을 눕혀 들고 실이 겉으로 나오지 않게 속으로 떠서 꿰매는 바느질로써 땀이 고르고 양쪽의 실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꿰매어야 잘 된 바느질이다. 이와 비슷한 직각 공그르기는 단 시접분으로 바늘이 통과할 때 어긋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 시접분의 바늘이 나온 그 자리에 겉 올 한 땀을 뜨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느질로 각이 직각을 이루어서 직각공그르기라고 한다. 두 바느질을 비교하면 바느질한 부분을 살짝 잡아 당겼을 때 단부분이 제자리로 들어간 직각 공그르기가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김지현, 2014). 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제된 과제 중 공그르기와 직각공그르기를 적용한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홑옷이나 겹옷에서 단을 부착하고 마무리 할 때나 도련단과 트임단을 정리할 때 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직각공그르기는 지방대회에서는 반회장저고리와 접치마(2009)의 어깨허리 치마 달림선의 안, 사규삼(2005)의 덧단, 전복과 복건(2008)의 계물단 등에 사용하여 겉으로 바늘땀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견고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대회에서는 요선철릭(2008)의 등바대, 결바대, 허리단, 섧단, 치마단, 소매단을 댄 후 단처리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홑답호(2009)에서는 단과 안깃에 직각공그르기를 사용하였다.

한복제작에서 옷의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손바느질 기법은 온당침, 반당침, 한땀 혹은 세땀 상침 등이 있다.

온당침은 온박음질을, 반당침은 반박음질을 뜻한다. 2016년 지방대회의 도포형겹두루마기의 안깃에 반당침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전국대회 홑답호(2009년)의 깃머리와 옆트임의 위 가장자리에 온당침으로 상침하였으며, 장옷(2004)의 선단과 밑단의 가장자리에 두 땀 온당침을 하여 안감과 겹감을 고정시켰다. 여자포(장옷:2015)의 동정을 깃 겉쪽에서 한 땀 당침질을 하여 깃에 고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때 바느질땀이 안감 깃에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장식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침박음질 중 특히 한 땀 상침과 세 땀 상침질은 바늘땀의 횡수와 간격을 맞추어 겉에서 바느질하는 것으로 박음질과 같으나 겉모양은 다르다. 상침의 목적으로 바느질땀이 보이면서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바탕과 대비되는 색실로 바느질하여 장식의 효과도 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5년

전국대회 출제문제 중 적삼의 동정 곁에 한 땀 상침을 하여 고정과 장식의 효과를 주었고, 철릭(2006)의 동정에는 세 땀 상침이 사용되었다. 요선철릭(2008)은 깃 걸감의 가장자리 세 땀 상침을 하였으며, 홀담호(2009)의 겹동정에 한 땀 상침을 하도록 하였다. 또 여자포(장옷:2015)에서는 동정이 달리지 않는 부위는 진분홍색의 색실로 세 땀 상침을 사용하여 장식과 고정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의 한복이 올바르게 계승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능경기대회의 출제문제를 유형화하고 제작방법을 분석하였다. 또 한복기능인들에게 다양한 한복 제작기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한복 문화산업에 다양한 활용가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한복 기능경기대회의 39개 과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제된 20개의 과제들은 의례복이 13번(65%), 평상복이 7번(35%)이 출제되었다. 의례복은 주로 남자 아동복(85.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아 의례복은 풍차바지, 사규삼, 까치두루마기, 전복과 복건, 두루마기 등이 있다. 평상복은 두루마기, 치마와 저고리, 회장저고리와 치마 등 여자 의상(66.7%)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둘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출제된 19개의 과제는 모두 성인복으로 출제되었다. 그 중 의례복이 13번(68.4%), 평상복이 6번(31.6%)이 출제되었으며, 특히 의례복은 출제 과제 13개 중 9번(69.2%)이 남성복이다. 평상복은 6번 중 남성복과 여성복이 각각 3번씩 출제되었다. 출제 횟수가 많은 의례복으로는 남성 철릭으로 2006년, 2008년, 2016년에 3번 출제되었다.

셋째,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제된 20개의 과제 중 18(90%)개는 겹옷으로, 나머지 2(10%)개는 홀옷(unlined Clothes)으로 출제되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의 19개 과제 중 11(57.9%)개는 겹옷으로, 8개(42.1%)는 홀옷으로 출제되었다.

넷째,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방대회와 전국대회 총 39과제 중 12과제가 홀옷으로 출제되

었다. 특히 지방대회는 어린이 옷이나 여성 홀담호와 같이 부피가 작거나 소매가 없는 옷이 출제되었으나 전국대회는 10과제 모두 성인복으로 남자 저고리와 바지, 혹은 여자 저고리와 치마, 도포나 철릭과 같이 부피가 크거나 제작 수량이 많아 소요시간이 긴 과제가 출제되었다. 홀옷을 제작할 때 사용된 바느질 방법으로는 곱술, 싸박기 박음질, 통술, 찜술 등이 있으며,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손바느질 방법은 상침질, 온당침, 반당침, 상침질, 한 땀 상침질, 세 땀 상침질 등이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손바느질 방법은 공그르기와 직각공그르기가 있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은 겹옷으로 제작하거나 홀옷으로 제작하는 거의 모든 과제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복분야의 기능경기대회에 출제된 과제를 중심으로 한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이므로 모든 한복의 제작방법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음을 알려둔다. 기능경기대회 출제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제작방법 및 바느질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정서와 삶이 표현하는 한복이 올바르게 계승되어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곽경희. (2012). *조선시대 후기 궁중 어린이복식에 관한 연구 및 재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남옥. (2008). *조선시대복식에 나타난 바느질 기법에 관한 연구 1. 服飾, 58(8), 120-136.*
- 금중숙. (2003). *조선시대 철릭의 형태 및 바느질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4). *기능경기대회에 출제된 한복분야 바느질법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송정아. (2014). *기능경기대회에 출제된 한복분야 바느질법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6(6), 927-934.*
- 류보영, 임상임. (1999). *장옷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대학원논문집, 23, 137-147.*
- 박은주. (2013). *전통한복의 디자인선호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안명숙. (2011). 유지경(1576~1650) 출토복식에 나타난 17세기 중기 의복 특징에 관한 연구. *대 한가정학회지*, 49(9), 25-33.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7).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이주원. (1992). *한복구성학*. 서울: 경춘사.

장인우. (1996). *조선중기 출토복식 중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혜경. (2000). 조선시대 철릭과 남자 포류와의 상호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4(2), 226-236.

e-뮤지엄: 사규삼. 자료검색일 2017. 6. 23,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2217269&cid=51293&categoryId=51293>

e-뮤지엄: 학창의. 자료검색일 2017. 6. 12,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1744&cid=51293&categoryId=51293>

NAVER 두산백과: 반비. 자료검색일 2017. 6. 23, 자료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8691&cid=40942&categoryId=32087>